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현 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지도 김 선 아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 호 학 과

이 현 화

이현화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글

이 곳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간호학 석사로서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가 새삼 대견하기도 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의 연구 과정에서 세심한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석사과정을 끝내기까지 무지에 있던 저에게 항상 정신간호학문에 대한 지적인 자극을 주시고 세심한 애정으로 논문을 지도해 주신 김선아 교수님, 먼 거리에서도 자상한 관심으로 제 논문의 구석구석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주신 현명선 교수님, 연구자로서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학위논문의 기본 틀을 잡아주신 장순복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고개숙여 전해 드립니다.

또한 간호대학의 리더로서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님의 모습으로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끊임없는 가르침을 주셨던 김소야자 학장님과, 석사과정 중에 연구자에게 학문적 힘이 되어 주시고 간호학에 대한 눈을 뜨도록 도와주신 김미자 교수님, 오가실 교수님, 황애란 교수님, 김주형 교수님, 그리고 이태화 교수님과 더불어 간호대학의 여러 교수님들께도 큰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단지 석사과정의 학생에게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되어주신 김명희 선생님과 김희겸 선생님, 변치 않은 우정을 보여준 용희, 기댈 수 있는 공간을 준 수진이 언니, 그리고 힘을 불어넣어 준 의철이,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스러운 동생 지원이와 정원이에게, 논문의 자료수집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이에서 연구자보다 더 정성스럽게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며 찬찬히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수현이 언니, 같이 논문을 쓰면서 동료로서 누구보다도 힘이 되었던 은경 언니와 경희 언니, 옆에서 정서적인 지지자로 항상 제 편이었던 현례 언니, 과정이 힘들어 좌절했을 때마다 든든한 대화상대가 되어준 장화경 선생님, 제 논문과정에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준 선형 언니와 명현이, 민옥이, 곽윤경 선생님

그리고 간호대학의 여러 수련직 선생님들, 또한 셀 수 없는 불평과 하소연을 순수한 우정으로 모두 수용해 주고 깊이 공감해 주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한 친구 해진이, 이 모든 분들에게 저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구 진행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명아 선생님, 멀리 계시지만 연구자에게 누구보다도 큰 role model인 남경아 선생님께도 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자의 변함 없는 지지자였던 김정환에게도 고마움과 진실한 깊은 애정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이모, 큰 외숙모, 작은 외숙모께도 감사드리며 다른 친지분들께도 일일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함에 진심으로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 지금은 편히 계실 할머님께 늦게 나마 이 논문과 함께 손녀딸의 사랑을 전합니다.

군대라는 힘든 곳에 있으면서도 누나의 뻔한 투정과 핑계를 오빠처럼 받아준 든든한 주홍이와 언니보다도 더 의젓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면서 저의 본보기가 된 정민이, 그리고 이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3년 7월

이 현 화 올림

차 례

표 차례 ····· iii

부록 차례 ····· iv

국문요약 ····· v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5

C. 연구문제 ····· 5

D. 용어의 정의 ····· 6

Ⅱ. 문헌고찰 ····· 7

A.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 7

B. 청소년과 극복력 ····· 10

Ⅲ. 연구방법 ····· 16

A. 연구설계 ····· 16

B. 연구 대상자 및 표집 방법 ····· 16

C. 연구도구 ····· 16

D. 자료분석 방법 ····· 22

Ⅳ. 연구결과 ····· 23
A.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변수 ····· 23
B.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 29
C.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 33

Ⅴ. 논 의 ····· 44
A.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 44
B.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 47
C. 연구의 의의 ····· 53

Ⅵ. 결론 및 제언 ····· 54
A. 결론 ····· 54
B. 제언 ····· 57

참고문헌 ····· 58
부　　록 ····· 65
영문요약 ····· 80

표 차례

<표 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 문제 분류 ····· 18
<표 2> 대상자의 인원수 ····· 23
<표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24
<표 4> 대상자들의 주요 변수 점수 ····· 26
<표 5>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의 대상자 수 ····· 27
<표 6>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주요 변수 비교 ····· 28
<표 7> 대상자들의 극복력 ····· 29
<표 8> 극복력 척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 30
<표 9>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 ····· 32
<표 10>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 33
<표 11>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 35
<표 1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 36
<표 13> 일반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 41
<표 14>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 42
<표 15>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 43

부록 차례

<부록 1> 극복력 측정 도구 ····· 65
<부록 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 ····· 67
<부록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차이 ····· 69
<부록 4> 설문지 ····· 71

국 문 요 약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본 연구는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부모를 둔 중학생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극복력(resilience)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중학생 자녀들의 극복력을 확인하고 부모가 문제음주를 하는 중학생 자녀들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을 규명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의 2개 학교, 지방 소재의 2개 학교에서 1, 2학년 남녀 중학생 482명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연구도구는 먼저 청소년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희(2003)의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7개 문항을 수정 또는 제외하여 사용하였고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를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극복력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측정을 위해 자존감 척도(장수미, 1991),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FACES Ⅲ, 안양희, 1988), 교우관계 척도(전숙자, 2003), 교사관계 척도(노숙영, 1998)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루어졌고 대상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여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전체 표본의 극복력 평균점수는 92.99±13.49점이었고 극복력 측정 도구의 세 가지 하부개념 중에 대인관계 특성의 극복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개인내적 특성의 극복력, 마지막으로 대처양상 특성의 극복력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중학생들의 극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먼저 문제대처능력에 대한 간호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결과에 따라 5점 이하인

일반 가정 청소년이 300명으로 전체의 62.2%이었고, 6~12점인 과음주 가정 청소년이 95명으로 19.7%, 13점 이상의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이 69명으로 전체 표본의 14.3%를 차지했는데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가진 극복력이 94.82±13.06점,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이 91.35±12.72점,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진 극복력이 87.36±14.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 또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세 집단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p<.01).

일반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에 대한 관련요인들은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성별, 외동여부, 취미 운동 여부, 친한 친구 및 존경하는 교사 수의 변수들이었고(p<.05),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교사관계, 취미 운동 여부, 성별, 한 달 가정수입이었다(p<.05).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극복력의 관련요인은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교우관계, 아버지 직업, 그리고 성별로 나타났다(p<.0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주요 관련요인을 알아보았을 때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유의하게 극복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종합해 보면,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게 돕는 청소년의 극복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청소년의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 청소년들보다 극복력이 낮게 나타난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존감과 가족 내 긍정적인 관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대상자 각각의 개별화된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여 문제음주 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더욱 필요로 되는 극복력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핵심되는 말 :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물질남용은 개인의 건강과 사회활동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수가 매우 높은 알코올중독은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질병으로서 당사자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가족기능에 심한 손상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가족질환이다. 더욱이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문제음주를 하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김명아, 2002;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박재연, 1999; 백금숙, 2000; 손영균, 1993; 이은정, 1998; 장수미, 1991; 최승희, 1997; Bartek, Linderman, & Hawks, 1999; Emshoff, & Price, 1999; Harter, 2000; Hill, Ross, Medd, & Blow, 1997; Jones, & Houts, 1990; Sergin, & Menees, 1996). 이들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무절제한 음주행위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부모로부터의 지지도 부족하여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 또는 우울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문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행동 문제 및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생동안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족 내에서 다양하고도 심각한 스트레스 또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기 쉽고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끊임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개인의 대처능력이 일반 가정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요구된다.

하지만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즉 문제음주자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를 계획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배우자와 특히 자녀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내 간호 현장에서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하여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간호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음주 행위를 그대로 학습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이들을 위한 예방적 활동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중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의 현실적인 경험에 대한 파악을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을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려는 접근으로서 최근에는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과거 연구들이 동질성이 증명된 대조군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상세팅에서의 표본에 국한하여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변수들만 주로 다루었으며 적은 수의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위기대처능력, 사회적 자원 활용가능성 및 정서적 안정화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친구지지와 지지적인 가정분위기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적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권구영, 1999; 민은정 외, 2001; 이정숙, 1994; 최윤정, 김혜련, 2001; Chang, 1994; Harter, 2000; Palmer, 1997; Wolin, & Wolin, 1995).

이와 같은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들의 적응 및 정상 발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극복력(resilience)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Fine, 1991; Luthar, & Zigler, 1991;

Philips, 1994, 김혜성, 2003에서 재인용). 극복력을 가진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리함을 잘 극복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적 도전이나 역경조차도 충분히 대처해 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최윤정, 김혜련, 2001;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하지만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그런 극복력을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낮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더 높은 극복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부모가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가정 내에서 그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무관심, 비난, 과잉보호, 또는 폭력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개인 내적으로 불안, 우울 및 자존감 저하를 겪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극복력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실질적 중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최근 간호학에서도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중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면서 더욱 강해지고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해 사용하는 경우가 확인되면서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을 지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극복력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극복력은 대상자들의 강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어서 만성적인 질병을 포함한 반복되고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모하는 간호의 기본철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 임숙빈, 오희영, 박영임, 이은현, 이숙(2002)은 극복력의 개념이 예방적 차원의 정신간호실무에 유용하다고 서술하면서 각 간호영역에서 대상자들이 갖는 극복력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극복력을 강화시키는 그들의 중재를 고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 경우에도 선천적인 장애나 가족적 요인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극복력과 그 관련요인들을 먼저 확인한다면 심각한 부적응적 문제로까지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부적응적인 사고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치료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가진 극복력을 파악하여 강화시키는 중재를 한다면 이들이 나타낼 수 있는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Harter, 2000; Palmer,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 자

녀들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 수행을 시작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대상자들의 극복력 수준을 비교하고 그들의 극복력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문제음주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부모를 둔 중학생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극복력(resilience)을 파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1) 일반 중학생의 청소년 극복력을 파악한다.
2)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수준을 파악한다.
3)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을 일반 가정과 과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과 비교하여 규명한다.

C. 연구문제

1) 일반 중학생의 청소년 극복력은 어떠한가?
2)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은 일반 가정과 과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D. 용어의 정의

1. 문제음주

문제음주(problem drinking)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영적 기능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으로 정의된다(Dayley, & Marlatt, 1997).

본 연구에서는, 가정 불화 및 가정 내 폭력을 야기하고, 그 자녀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음주 행위를 의미하며, Jones (1981)가 개발한 도구를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1995)이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마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를 통해 13점 이상인 경우를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집단으로 선별하였고 또한 6점 이상~12점 이하인 경우는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극복력

극복력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내재된 다양한 능력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김동희, 2002).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와 그로 인한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과 같은 위험요인(risk factor)이 있음에도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김동희(2002)가 개발한 극복력 측정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 맞게 수정 후 극복력을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나타낸다.

Ⅱ. 문헌고찰

A.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알코올남용은 수십년 동안 심각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고 최근에 질병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졌다. 특히 알코올의존 또는 중독과 같은 문제음주자들은 가까운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 즉 문제음주를 가진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원들은 다양한 역기능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역기능적 가정 환경에서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인 자아정체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한 문헌들이 많이 있다.

문제음주자가 있는 가족들은 직접적이며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부부 불화, 가족 내 폭력, 공포, 불안, 수치, 혼돈 등 가족 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매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함께 우울, 죄의식, 불신감, 분노 등의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된다. 특히 청소년 자녀들은 학교에서의 문제행동이나 과다행동, 도벽, 가출, 공격적 행동 등의 행동문제 뿐 아니라 이른 음주 행동과 약물남용 등 물질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명아, 2002; 박재연, 1999; 백금숙, 2000; 손영균, 1994; 이은정, 1998; 이정숙, 1994; 장수미, 1991; 최승희, 1997; Bartek 등, 1999; Harter, 2000; Jones, & Houts, 1990; Osterman, & Grubic, 2000; Schuckit, 1995).

또한 장수미(2001)는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동일시 모델의 상실로 인하여 성역할 정체성이 결여되고 특히 딸의 경우에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에 동일시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되거나 자신이 알코올중독자가 되고 또는 중독자와 결혼하는 등 부모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영향을 일생동안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양원(1995)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들이 통제집단보다 충동성과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유의

하게 더 높게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문제음주의 가족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이른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음주량이 더 많으며 음주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esley와 Stoltenberg(2002)가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중독자 자녀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애착 형태, 배우자에 대한 조절 및 만족감을 비교했을 때 알코올중독자 자녀 집단이 배우자에 대한 조절 욕구가 유의하게 강했고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들은 우울과 불안, 분노, 혼란의 감정을 자주 경험하면서 낮은 자존감, 자아정체감의 미발달, 성역할 정체성 결여 등 발달과업이 방해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됨이 보고되어왔다.

다시 말해 문제음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포함한 그 가족을 병리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에 적응상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나 또는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내부의 힘에 초점을 두어 잘 적응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나 그 적응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연구대상이 병원이나 치료기관, 법적 기관 등 임상적인 집단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제음주자의 자녀들이 더 부정적인 문제를 많이 가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점차 일반 대상으로 연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구 결과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부모가 문제음주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특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자 자녀 중 13～25%의 청소년들이 장래에 역시 알코올중독의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지만 이 자료는 또한 모든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Emshoff, & Price, 1999). Menees와 Sergin(2000)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가족과 다른 가족 스트레스원을 가진 가족으로서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또는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알코올중독자 가족이 특수하게 더 나타내는 문제는 없으며 부모의 알코올 문제로 인한 별거나 이혼, 실직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트레스원을 함께 가지는 경향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한편 건강하게 잘 적응하는 알코올중독자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민은정 등, 2001; 이정숙, 1994; 장수미, 2001; 최윤정, 김혜련, 2001), 먼저 Chang(1994)은 알코올중독 가정의 성인자녀들이 사회적 자원의 활용성에 대해 인식정도가 높은 경우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난 성인자녀들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삶에 대한 적응도가 뛰어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숙(1994)은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을 적응변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대상 청소년이 받는 친구지지와 아버지의 학력과 경제적 수준 등이 그들의 우울-불안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 그리고 학업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였고 부모의 문제음주보다는 가정의 환경변인과 사회적 지지가 여러 적응변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권구영(1999)의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결속력 및 적응력에 있어서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환자 입원보다는 가족과의 합의입원이 가장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부인의 직업과 종교, 지지망 등이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임이 설명되었다.

Palmer(1997)는 성인이 된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모두 병리적인 문제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진 극복력(resilience)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적응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Harter(2000)는 일반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높은 극복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부모의 문제음주가 그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가족적 스트레스원을 유발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가족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도 스트레스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진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인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그런 스트레스원에 적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B. 청소년과 극복력

'resilience'는 '탄력, 탄성(elasticity), 복원력' 등의 단어로 대치될 수 있으며 인간의 질병 상황에서 '신속한 회복력'을 의미한다. 먼저 물리학적 의미로는, '다시 튀어오르거나 되돌아오는 행위나 반동'으로 설명되고(Oxford, 1993), 반면에 인간에게 적용된 의미로는 '건강 등이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본디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또는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형편과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는 성질'로 설명된다(동아참국어사전, 2001).

국내 여러 연구들에서는 resilience를 회복력(김혜성, 1998; 이인숙, 박영숙, 이은옥, 이현숙 등, 2002), 적응유연성(박현선, 1998), 복원력(오승아, 이양희, 1999), 탄력성(장휘숙, 2001), 유연성(서지영, 2002), 극복력(김동희, 2003) 등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해 왔는데, 이 단어들 중 인간의 심리사회적인 복합적 측면을 보다 잘 나타내고 상황과 내적 자원에 따라 변화 가능한 resilience의 특성을 가장 가깝게 나타내고 있는 '극복력'을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들이 가지는 resilience를 의미하는 단어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초기 극복력은 1970년대와 80년대 아동 발달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조기 중재와 예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약 10년 간 극복력에 대한 개념의 공식화와 조작화 과정에서 개인의 선천적이고 고정된 심리사회적 능력 또는 특성으로서 연구되다가 점차 단계를 가진 과정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한 개인이 변화, 스트레스나 위험에 직면할 때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주며 환경과 개인의 보호요소에 의해 증가되고 변화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김동희, 2003; 김미옥, 2001; Focht-Birkert, & Beardslee, 2000).

Dyer와 McGuinness(1996)는 극복력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사람들이 역경에서 회복하여 그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극복력이라고 설명하였고 극복력 발현에 필수적인 개인적, 대인관계적, 가족적인 보호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Walsh(1998)는 극복력을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Hunter(2001)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극복력의 개념 규명을 위한 질적 연구에서 극복력 개념 내에 자기만족, 성숙, 유연성과 함께 자기보호, 생존의 의미가 포함됨을 밝혔다. Fonagy 등(1994)은 어려운 상황, 조건에서의 정상 발달이라고 극복력을 정의하였고 Hertrington과 Blechman(1996)은 극복력의 핵심 요소로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대처, 계획성 있는 활동을 할 능력 등의 개인의 적응반응을 꼽으면서 낙천성, 신념과 같은 개인적 속성이 이런 극복력에 기여하며 개인속성은 환경과 상호작용 한다고 하였다(최윤정, 김혜련, 2001에서 재인용). Palmer(1997)는 극복력을 위험한 시기에 발전되는 중요한 속성으로 행동적·인지적 자신감,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을 포함하며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혼돈 단계(anomic survival), 회복 단계(regenerative resilience), 적응 단계(adaptive resilience), 성장 단계(flourishing resilience)의 4단계를 가진 변화 가능한 개념으로 주요 생애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극복력을 설명하였다.

이인숙 등(2002)은 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가족의 기능 회복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가족 기능 회복력'이란 가족이 스트레스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기능상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를 유도하는 특징, 속성, 추진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극복력과 같은 의미로 회복력의 개념을 개발한 김혜성(2003)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은 역경 하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감소하고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사회적 능력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스트레스에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강인성, 응집감, 자아강도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고 상황의 실체 인정, 책임감, 자신감, 용기, 희망, 긍정적 의미 추구, 목표설정 및 추구, 수용성, 융통성 등의 심리적 차원과 소속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능동적 사회적 관계의 사회적 차원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기존 문헌들에 따라 극복력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한 개인이 역경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 및 위기나 다양한 변화의 시점에서, 그 변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응 또는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인

내적 능력을 의미한다.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lum(1998)의 연구와 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등(2003)의 연구에서는 극복력에 대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환경 또는 외부적 요인의 세 가지 부분으로 청소년의 극복력의 관련 요소들이 설명되었는데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서 영성, 내적 통제위,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높은 자존감, 긍정적 사회성, 높은 지적 능력, 의사소통 기술을 들 수 있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지지적인 가족, 가족 응집력, 부모나 형제와의 친밀감을, 외부적 요인으로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 활동, 교우관계, 어린 시절에 더 많은 돌봄자가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극복력이 개인의 내외적 측면에서 그리고 그 개인에 대한 위험과 보호 과정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연관된 역동적 과정으로 삶의 다양한 사건들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Gilligan(1999)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흥미, 관심 분야에서의 능력이 극복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Loewenson과 Blum(2001)은 극복력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가난, 가족원의 정신질환력, 아동기의 잦은 이사 등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성공적인 발달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반면 극복력의 보호요인은 가족요인으로서 부모-가족 결속력, 부모와 동거,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있고 학교요인으로서 또래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학교요인은 부모와의 결속력이 부족할 경우에도 충분히 극복력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영성 또는 종교, 성적 등이 있고 기타요인으로는 민족성, 가정의 수입, 가족구조 등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가진 극복력은 개인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 상황이나 개인이 역경이라고 인지하는 상황의 스트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의 개념이며 개인의 극복력의 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인 유연성과 강인함, 그리고 개인과 밀접하게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는 주변 환경에서의 지지적인 요소가 극복력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극복력을 가진 집단의 특성을 알아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Anthony(1968, 1974, 1983)는 지능이 높고 부모의 기질적인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며 위험요인이 없고 내부 잠재력이 있어 좋은 대

처능력으로 환경 통제 및 환경에 잘 적응하며 균형성, 자율성, 독립성 등을 극복력 있는 청소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였고(최윤정, 김혜련, 2001), Dumont와 Provost(1998)는 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처력이 높고 외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특성을 극복력을 지닌 청소년들이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Mandleco와 Peery(2000)는 아동의 극복력을 개인 내적인 영역과 외적인 영역으로 구분한 개념틀로 설명하였는데, 아동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영역의 지표로 개인의 인지능력, 대처 양상, 내적 특성, 대인 관계 특성을 들었다. Jew, Green, Kroger(1999)가 35개 문항의 극복력 도구를 개발하여 일반 대상자들에게 측정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개인들은, 학업능력이 더 좋고, 내적 통제위가 더 높으며 학업이나 직장, 운동, 교우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응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sh(1998)는 극복력이 있는 아동들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1명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자기가치감을 가지고 또한 mentor와 연결되어 격려를 받은 경우 특별한 취미나 기술 등을 발전시켜 스스로에 대한 능력, 자신감, 정복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문헌은 극복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학업이나 교우관계, 취미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극복력이 있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측면에서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Beardslee와 Podorefsky(1988)의 연구와 Focht-Birkerts와 Beardslee(2000)의 연구에서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극복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특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전념하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의 서지영(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이혼이 자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유연성(resilience)이 높으면, 부모이혼으로 인한 아동의 우울이나 불안, 공격성이 감소됨이 밝혀졌다.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극복력은 다른 군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극복력보다 더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다.

Werner(1986)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들 중 소년보다 소녀가 더 극복력이 있으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고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가 어머니의 경우보다 극복력이 더 있다고 설명하였다. Harter (1990)는 극복력을 지닌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알코올남용 위험이 높지 않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외향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일의 경험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Wolin과 Wolin(1995)은 역기능적이며 종종 학대적인 약물남용 가족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극복력을 보이는 건강한 성인들에 대하여 설명했는데,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가지고 범죄와 연관된 어머니가 심하지는 않지만 알코올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딸들의 경우에 한해서만 알코올중독이 나타날 위험이 있을 뿐,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자녀로까지 유전되는 것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알코올중독 가정이라도 저녁식사 시간과 같은 가족의 풍습을 중요시하는 가족인 경우(ritual-protected families) 알코올의 악영향을 막아주고 그 자녀들의 극복력이 길러진다고 설명하였다.

최윤정과 김혜련(2001)은 외국 문헌들의 결과를 통해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의 측정변수 구성틀로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었는데 개인적 특성으로는 높은 지능, 높은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감, 높은 책임감과 자율성, 자기신뢰와 자기 이해, 대인관계가 좋은 것을 들 수 있고 환경적 특성으로는 건강한 또래집단이 있으며 학업환경이 좋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mshoff와 Price(1999)는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알코올중독이 전이되지는 않는데 여기에는 유전적 문제나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적 지지, 자신감, 자존감이 함께 큰 부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설명했다. 또 음주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개인과 그 가족, 환경적 수준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지면 이들에 대한 예방적 그리고 치료적 중재의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고려할 점으로서 극복력의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 그리고 극복력을 가진 개인들의 특성이 혼용되거나 그 범위가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극복력 개념의 정의가 아직 다양하고 개념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

에서 기인한다고 보여진다(임숙빈, 오희영, 박영임 등, 2002;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요약하면, 청소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 자기신뢰 및 이해, 자기 효능, 내적 통제력, 좋은 문제 대처능력, 낙천성, 유머, 기타 학업 능력 높은 것이 극복력 있는 청소년의 주요 특성 및 관련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활발한 사회적 활동, 성별, 경제적 수준 등이 기타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국내의 문제 음주 가정 청소년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환경 속에서 발생되는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상 청소년들이 문제음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원에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중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 여부에 따른 청소년 자녀들의 극복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비교 조사연구이며 극복력과의 관련요인 및 예측변인들을 밝히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B. 연구 대상자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문제음주 부모를 둔 국내 중학생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서울 소재의 2개 학교, 지방 소재의 2개 학교에서 1, 2학년 남녀 중학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약 3주간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 듣고 동의한 대상자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었고 총 482부의 설문지가 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C.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30문항, 극복력 측정 31문항, 가족 적응력·결속력 평가 척도(FACES Ⅲ) 20문항, 자존감 측정 10문항과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를 포함하여 일반적 특성을 묻는 17문항으로 총 10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도구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는 1983년 Jones에 의해 개발된 검사로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알코올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안된 30문항의 자가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부모의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 부모 음주와 관련된 가정불화에 대한 지각, 부모의 음주를 조절하려는 시도, 알코올중독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 음주와 관련된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됨, 부모를 알코올중독자로 지각하는 경향, 전문적 상담을 받고 싶은 소망에 대하여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알코올중독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알코올중독자 집단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는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에 대한 연구보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의 위험 수준을 과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관점들이 많아졌고 최근 알코올중독자 부모를 가진 자녀를 판별하기 위해 일반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직접 보고를 하는 자가보고식 방법을 많이 사용해오고 있다(손영균, 1993; 이양원, 1995; 이은정, 1998; 이정숙, 1994; 전수미, 2000; Havey, & Dodd, 1995; Hodgins, Maticka-Tyndale, El-Guebaly, & West, 1995).

Jones는 총 30개 문항에 대하여 1문항에 1점씩('예'로 응답한 경우) 총 6점 이상이면 알코올중독자 자녀로 판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국내 알코올중독자 자녀에서는 평균 13~16점이 해당된다고 한다(전수미,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 형태 분류(김미례 외, 1994; 전수미, 2000에서 재인용)를 적용하여 5점 이하를 사회적 음주와 비음주를 포함한 일반가정의 청소년, 6~12점을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13점 이상을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개발당시의 CAST 도구의 Cronbach's α는 .98이었고(Jones, 1983b) 성인을 대상으로 한 Staley와 El-Guebaly(1991)의 연구에서는 .97, Clair와 Genest(1992)의 연구에서는 .88의 신뢰도가 보고되었다(Havey, & Dodd, 1995). 김미례 등의 연구

(1995)에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도구(CAST-K)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79이었다.

<표 1> CAST에 따른 부모의 음주 문제 분류

0~1점	비음주 부모 (non drinker)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자녀들에게도 술에 관련된 걱정을 전혀 끼쳐주지 않는 경우
1~5점	사회적 음주 부모 (social drinker)	술을 마시기는 하지만 자녀들에게 별 걱정을 주지 않는 경우
6~12점	과음주 부모 (heavy drinker)	술을 좋아하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남용일 때 과음주로 분류
13점 이상	문제음주 부모 (problem drinker)	술을 너무 좋아해 술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정도로서, 의학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분류

2. 극복력 측정도구

개인내적 특성, 대처양상 특성, 대인관계 특성의 하부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김동희(2003)의 만성질환아의 극복력 측정 도구를 일반 청소년들과 문제 음주 가정의 청소년의 극복력을 설명한 여러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다(1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합해진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극복력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김동희, 2003), 도구의 구체적인 하부개념 및 요소는 <부록 1>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총 32개 문항 중 만성질환아와 관계된 6개의 문항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의 극복력의 하부개념에 맞게 5개 문항을 수정하고 한 문항 제외시켰다. 또한 '친밀성' 요소의 문항 중 한 가지는 청소년 극복력 개념으로 더 적절하게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정된 6개의 항목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52～.9279이었고 전체 31문항의 극복력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275이었다.

3.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 FACES Ⅲ)

문헌고찰을 통해 문제음주 가정 자녀들의 극복력과 관계된 관련 요인들을 추출한 후 연구도구에 포함하였다. 먼저 가족 환경 및 지지를 대변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가족결속력 및 적응력은 안양희(1988)가 번안하고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곽기우 등의 연구(1990)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Olson, Pontner, Lavee(1985)의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FACES Ⅲ)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결속력이란 가족구성원의 가족 내 분산 및 연결 정도로서 가족의 정서적 밀착성을 나타내며 가족적응력은 가족 체계의 변화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이경미, 박재용, 한창현, 2000). 가족의 적응력이 10문항(짝수 문항), 결속력이 10문항(홀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거의 안 그렇다(1점), 가끔 그렇다(2점), 때때로 그렇다(3점), 자주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력과 가족결속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474였다.

4. 자존감 척도

김선희 등(1987)이 Rosenberg(1965)의 S.E.S(Self-Esteem Scale)를 번안한 것을 장수미(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항목들은 '매우 그렇다(4점), 그렇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2, 5, 6, 8, 9번째 문항은 역산처리 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249였다.

5. 교우관계 척도

Sterbourne와 Stewart(1991)의 사회적지지 조사표와 Delongis 등(1988)이 사용한 방법을 기초로 김정희(1992)가 제작한 대인관계 검사 중 친구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전숙자(2003)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상황과 이해 수준에 맞게 수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상당히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다. 전숙자(200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08이었다.

6. 교사관계 척도

노숙영(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윤희(1994)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 중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8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교사관계의 도구 내용은 학생과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 표현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6번째와 7번째 문항은 역산처리 되었다. 노숙영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194였다.

7. 일반적 특성

문제음주 가정의 중학생 자녀들이 가지는 극복력의 기타 관련 요인으로서 대상자의 성별, 종교, 흥미/관심 주제 및 취미활동, 동거가족, 성적과 문제음주를 하는 부모의 성별, 부모 학력 및 직업, 가정의 경제 수준의 일반적 특성들을 연구도구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D.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거나 점수로 입력되었으며 입력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WIN 10.0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일반적 특성 비교를 위해 χ^2검정하였다.

2) 대상자의 청소년 극복력은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3)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대상자의 극복력 수준은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극복력과의 관련 요인들은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5)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극복력을 설명하는 주요 관련 요인들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Ⅳ. 연 구 결 과

A.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 변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 분포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1학년 남학생 85명, 여학생 110명, 2학년 남학생 122명, 여학생 165명의 총 482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성별, 학년과 연령, 형제자매, 종교, 취미활동, 친한 친구, 존경하는 선생님, 학교 성적, 동거가족,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대상자들의 연령은 14.36±.78세이었고 형제자매 분류에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413명으로 전체의 85.7%이었고 외동딸 또는 외동아들인 경우가 47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325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으며, 개인적인 취미활동은 1.80±1.17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전체 대상자 중에 92.7%인 447명이 취미활동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반에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2.84±3.81명이었고, 교내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생님은 2.62±3.2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학기 성적의 경우 1～10등이었던 대상자는 170명(35.3%), 11～20등이었던 대상자는 155명(32.2%)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인원수 (단위: 명)

학 년 \ 성 별	남	여	합 계
	실수 (%)	실수 (%)	
1학년	85 (17.6)	110 (22.8)	195 (40.5)
2학년	122 (25.3)	165 (34.2)	287 (59.5)
합계	207 (42.9)	275 (57.1)	482 (100.0)

<표 3>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482)

변 수	구 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	207 (42.9)	
	여	275 (57.1)	
학년	1학년	195 (40.5)	
	2학년	287 (59.5)	
연령 (세)			14.36±.78
형제자매	외동	47 (9.8)	
	형제자매 있음	413 (85.7)	
종교	있음	325 (67.4)	
	없음	150 (31.1)	
취미활동 개수			1.80±1.17
	없음	35 (7.3)	
	있음	447 (92.7)	
친한 친구 수 (명)			2.84±3.81
	없음	95 (19.7)	
	1～2명	183 (38.0)	
	3명 이상	192 (39.8)	
존경하는 교사 수 (명)			2.62±3.21
	없음	82 (17.0)	
	1～2명	198 (41.1)	
	3명 이상	182 (37.8)	
지난 학기 성적	1～10등	170 (35.3)	
	11～20등	155 (32.2)	
	21등 이하	130 (27.0)	
조부모 동거 여부	조부모 한 분이라도 동거	110 (22.8)	
	모두 동거 안 함	371 (77.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모두 동거	430 (89.2)	
	한 분 또는 모두 동거 안 함	51 (10.6)	
부모 결혼 형태	일반 가정	456 (95.6)	
	이혼	21 (4.4)	

주 : 무응답 제외

<표 3> 계속 (N=482)

변 수	구 분	실수 (%)	평균±표준편차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55 (11.4)	
	고등학교 졸업	240 (49.8)	
	대학 졸업 이상	138 (28.6)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83 (17.2)	
	고등학교 졸업	293 (60.8)	
	대학 졸업 이상	64 (13.3)	
아버지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11 (23.0)	
	사무직	75 (15.6)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246 (51.0)	
	무직	9 (1.9)	
어머니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28 (5.8)	
	사무직	44 (9.1)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77 (36.7)	
	전업 주부	198 (41.1)	
한 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53 (11.0)	
	101～200만원	131 (27.2)	
	201～300만원	92 (19.1)	
	301만원 이상	124 (25.7)	

주 : 무응답 제외

조부모와 동거 여부를 봤을 때 외조부모를 포함해 한 분이라도 동거하는 대상자는 110명으로 전체의 22.8%이었고 반면 371명의 대상자들(77.1%)은 핵가족의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모 동거 여부에서는 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대상자가 430명(8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모가 이혼한 대상자가 21명(4.4%),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을 가진 대상자가 456명으로 전체의 95.6%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240명(49.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이 293명(60.8%)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직업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경우 서비스직 또는 생산기술직 및 기타가 246명

(51.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서비스직 또는 생산기술직 및 기타가 177명(36.7%)으로 전업 주부 198명(41.1%)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가정의 한 달 수입에 대해서는 131명(27.2%)이 101～200만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대상자들 중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82명(17.0%)으로 많이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가 보고한 한국어판 알코올중독 자녀 선별검사(CAST-K) 점수,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자존감,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대상자들의 주요 변수 점수 (N=482)

변 수	평균±표준편차	가능한 점수 범위	관찰된 점수 범위
CAST-K	5.45±6.20	0～30	0～30
자존감	27.45±5.07	10～40	13～4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56.95±13.10	20～100	20～96
교우관계	48.53±13.57	14～70	14～70
교사관계	20.41±4.71	8～32	8～32

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 비교

전체 대상자들을 한국어판 알코올중독 자녀 선별검사(CAST-K)를 통해 5점 이하를 일반 가정의 청소년, 6점 이상~12점 이하를 과음주 가정 청소년, 13점 이상을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으로 구별하였다. 세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면 <표 5>에서처럼 일반 가정 청소년이 300명으로 전체의 62.2%을 차지했고, 과음주 가정 청소년이 95명으로 19.7%,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이 69명으로 14.3%이었다.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 정도에 따른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부록 2>에서와 같다. 먼저 세 집단 간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문제음주 가정과 과음주 가정에서 2학년인 대상자의 비율이 일반 가정에서보다 더 많았다($p<.05$). 또한 부모 동거 형태에 있어서 문제음주 가정의 경우에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고 이혼한 사례에서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p<.05$).

아버지 학력에서는 문제음주 가정에서 아버지가 대학 졸업 이상인 사례가 가장 적었고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0$). 어머니 학력에서도 문제음주 가정에서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적었고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p<.01$).

문제음주 가정의 경우 어머니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 이상인 대상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반해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전체의 6.7%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이 서비스직 및 생산기술직 또는 기타인 경우가 문제음주 가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주부인 경우의 비율은 문제 음주 가정과 일반 가정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5> 부모의 문제음주의 정도에 따른 세 집단의 대상자 수 (단위: 명)

	일반가정 청소년	과음주 가정 청소년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실수 (%)	300 (62.2)	95 (19.7)	69 (14.3)

<표 6>에서처럼 세 집단 간 주요 변수의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세 집단 사이의 자존감 평균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고(p=.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1), 모두 문제음주 가정이 세 집단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Turkey 사후검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자존감은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2.72점(p=.000),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자존감 점수보다 1.82점(p<.0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균점수의 사후검정에서는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점수가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4.87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주요 변수 비교

변 수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F	Sig.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존감	28.23±5.06ab	26.41±4.60b	25.51±4.85a	10.927	.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58.22±13.02a	56.85±11.77	53.35±14.19a	5.238	.006
교우관계	48.67±13.96	48.62±12.35	47.43±13.78	.235	.791
교사관계	20.78±4.44	20.16±5.44	19.43±4.60	2.499	.083

주 :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B.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1. 청소년 극복력

대상자들의 극복력은 31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여 도구의 점수범위는 31~124점이었고 본 연구에서 관철된 점수범위는 43~124점이었으며 극복력의 평균점수는 92.99점, 표준편차는 13.49점이었다. 청소년 극복력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3개의 하위영역인 개인내적 특성, 대처양상 특성, 대인관계 특성과 각 하위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의 구체적인 점수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각 영역별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는 4점 만점에 개인내적 특성이 3.04±.55점, 대처양상 특성이 2.84±.46점, 대인관계 특성이 3.16±.48점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특성의 극복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인내적 특성의 극복력, 마지막으로 대처양상 특성의 극복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표 7> 대상자들의 극복력

특 성	요 소	관찰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평균평점±표준편차
개인내적 특성		10~40	30.35±5.48	3.04±.55
	긍정적 자기이해	10~40	30.35±5.48	3.04±.55
대처양상 특성		18~48	34.04±5.56	2.84±.46
	자립성	13~40	27.96±4.99	2.80±.50
	자원동원성	2~8	6.05±1.23	3.03±.62
대인관계 특성		11~36	28.44±4.35	3.16±.48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4~16	12.55±2.38	3.14±.60
	친밀성	7~20	15.87±2.61	3.17±.52
총점		43~124	92.99±13.49	3.00±.44

<표 8> 극복력 척도의 문항별 평균평점과 표준편차

내 용	평균평점±표준편차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3.25±.77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2.77±.74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2.82±.74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2.78±.81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3.17±.79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3.19±.83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3.01±.90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3.11±.72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2.81±.84
나는 소중하다.	3.42±.75
긍정적 자기이해 평균	**3.04±.55**
개인내적 특성 평균	**3.04±.55**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14±.74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3.13±.66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2.70±.78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2.70±.80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3.01±.70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2.67±.77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2.76±.8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30±.81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2.84±.82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2.69±.89
자립성 평균	**2.80±.50**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3.21±.74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2.84±.82
자원동원성 평균	**3.03±.62**
대처양상 특성 평균	**2.84±.46**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2.89±.80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3.20±.71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3.07±.85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3.38±.72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평균	**3.14±.60**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	3.52±.70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3.29±.6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3.00±.79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3.12±.85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2.94±.77
친밀성 평균	**3.17±.52**
대인관계 특성 평균	**3.16±.48**
극복력 전체 평균	**3.00±.44**

극복력의 첫 번째 하부영역인 개인내적 특성의 긍정적 자기이해 요소의 문항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3.25±.77)였다. 두 번째 하부영역인 대처양상 특성에서 먼저 자립성 요소의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살펴보면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3.14±.74)이었고 자원동원성 요소의 두 문항 중에는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3.21±.74)였다. 세 번째 하부영역인 대인관계 특성에서는 먼저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요소의 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3.38±.72)이었고 친밀성 요소의 문항 중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3.52±.70)의 문항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 극복력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에 의해 나누어진 일반 가정 청소년과 과음주 가정 청소년,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의 극복력 비교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세 집단의 극복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p=.000)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극복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이 과음주 가정 청소년, 그리고 일반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극복력을 가지고 있었다. Turkey 사후검정 결과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이 일반 가정 청소년들보다 평균점수가 7.46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0).

<표 9>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

변 수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F	Sig.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극복력	94.82±13.06a	91.35±12.72	87.36±14.38a	9.379	.000

주 :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C.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1.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다른 주요 변수들 사이 상관분석 결과는 <표 10>에 나타나 있는데, 자존감(r=.687),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r=.497), 교우관계(r=.304), 교사관계 점수(r=.298)들과는 모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p=.000) 특히 자존감과 교우관계 점수와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CAST 점수와는 유의한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r=-.247, p=.000).

<부록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점수를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의 극복력이 96.15±13.79점으로 90.52±12.74점인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 형제자매 형태에서는 외동인 대상자 집단이 형제자매가 있는 대상자 집단보다 극복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1). 대상자들에게 취미활동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운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97.34±13.57점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p=.000).

<표 10> 대상자들의 극복력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N=482)

	X1	X2	X3	X4	X5	X6
극복력(X1)	1.000					
자존감(X2)	.687 (p=.000)	1.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X3)	.497 (p=.000)	.376 (p=.000)	1.000			
교우관계(X4)	.304 (p=.000)	.208 (p=.000)	.227 (p=.000)	1.000		
교사관계(X5)	.298 (p=.000)	.324 (p=.000)	.282 (p=.000)	.113 (p=.017)	1.000	
CAST-K(X6)	-.247 (p=.000)	-.249 (p=.000)	-.185 (p=.000)	-.051 (p=.282)	-.112 (p=.018)	1.000

학교에서 친한 친구 수에 따라 극복력에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p=.000) Turkey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1~2명 또는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 평균 점수가 6점 이상씩 높게 나타났다(p=.000). 또 존경하는 교사가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집단의 극복력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의 극복력이 나타났다(p<.05). 지난 학기 반에서의 성적에 따른 극복력을 보면 1~10등 집단의 극복력 점수가 95.61±13.33점으로 가장 높으면서 21등 이하인 대상자들보다 6.28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부모가 이혼한 경우 대상자의 극복력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더 낮았고(p<.01) 조부모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극복력 평균 점수는 더 높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 분류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와(p<.05) 어머니 학력에 따른 극복력 차이(p<.0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먼저 아버지 학력에서 Turkey 사후검정에 따르면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 대상자의 극복력이 유의하게 높았고(p<.05), 어머니 학력의 경우에는 어머니 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보다는 약 4.9점(p<.05),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보다는 약 8.7점의 차이로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p<.01).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 이상인 대상자들의 극복력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서비스직 및 생산기술직 또는 기타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 가정수입의 경우 한 달 100만원 이하인 집단이 201~300만원,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극복력이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p<.01).

전체 중학생 대상자들의 극복력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상자가 남자인 경우, 외동인 경우, 취미로 운동을 하는 경우, 학교에 친한 친구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지난 학기 성적이 높은 경우,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 부모 학력이 높은 경우,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 이상인 경우, 가정의 한 달 수입이 더 많은 경우에 극복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1)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따른 극복력

일반 가정 청소년,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의 세 집단 간 극복력을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들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가정의 청소년,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극복력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일반가정 청소년 집단의 경우 극복력과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자존감(r=.641),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r=.441), 교사관계(r=.310), 교우관계(r=.310) 점수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p=.000), 자존감의 경우 상관계수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은 극복력이 자존감(r=.713, p=.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r=.592, p=.000)과 함께 교사관계 점수(r=.368, p=.000)와도 매우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의 극복력은 자존감(r=.738, p=.000)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r=.452, p=.000)와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교우관계 점수(r=.345, p<.01)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1>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과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변 수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자존감	.641 (p=.000)	.713 (p=.000)	.738 (p=.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441 (p=.000)	.592 (p=.000)	.452 (p=.000)
교우관계	.310 (p=.000)	.157 (p=.146)	.345 (p=.005)
교사관계	.310 (p=.000)	.368 (p=.000)	.101 (p=.423)

<표 1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변 수	구 분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	132	96.75±13.73	2.362*	34	95.59±12.78	2.518*	26	91.88±15.43	2.113*
	여	146	93.08±12.21		58	88.86±12.12		40	84.43±13.03	
학년	1학년	125	95.38±13.14	.650	26	87.54±11.82	-1.825	22	90.32±12.76	1.184
	2학년	153	94.36±13.02		66	92.85±12.84		44	85.89±15.05	
형제자매	외동	31	100.29±13.18	2.543*	5	94.20±9.86	.560	9	91.56±14.41	.936
	형제자매있음	233	94.02±12.86		84	90.89±12.96		54	86.59±14.77	
종교	있음	185	95.46±12.61	1.175	68	92.06±14.07	.981	40	87.75±15.43	.336
	없음	91	93.49±14.05		22	89.73±7.77		24	86.50±12.54	
취미활동	있음	256	95.11±13.16	-1.244	87	91.47±13.02	-.386	61	86.69±13.84	1.340
	없음	22	91.50±11.56		5	89.20±5.63		5	95.60±19.98	
취미 운동 여부	운동함	77	98.49±13.27	2.942**	29	97.62±12.78	3.388**	16	92.06±15.90	1.516
	운동 안 함	201	93.41±12.74		63	88.46±11.70		50	85.86±13.69	
친한 친구 수	없음	55	89.91±14.81ab	5.476**	17	88.65±11.78	2.013	17	81.65±14.92	2.020
	1～2명	101	95.18±13.22a		33	94.82±13.10		29	89.69±15.12	
	3명 이상	118	96.83±11.55b		40	89.55±12.75		17	89.76±11.29	
존경하는 교사 수	없음	44	93.09±14.93	3.655*	14	85.64±18.99	1.828	20	86.45±14.45	.043
	1～2명	119	93.35±12.94a		36	91.53±11.57		23	87.13±17.72	
	3명 이상	99	97.79±12.39a		40	93.20±11.04		22	87.77±10.56	
지난 학기 성적	1～10등	98	97.47±11.99a	3.005	34	93.53±15.57	1.497	27	90.63±14.20	1.805
	11～20등	98	94.65±14.26		29	91.72±12.66		16	85.63±15.74	
	21등 이하	65	92.43±12.90a		24	87.63±8.07		22	83.27±11.77	
조부모 동거 여부	한 분이라도 동거	61	96.34±13.45	1.032	23	93.22±15.64	.812	14	87.79±15.42	.123
	모두 동거 안 함	217	94.39±12.95		69	90.72±11.66		52	87.25±14.25	

주 : *p<.05, **p<.01.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표 12> 계속

변 수	구 분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부모 동거 여부	모두 동거	252	95.04±13.14	.888	85	91.66±12.89	.815	53	87.70±12.09	.268
	한 분만 또는 모두 동거 안 함	26	92.65±12.29		7	87.57±10.50		13	86.00±22.01	
부모 결혼 형태	일반 가정	266	95.06±13.00	.974	87	91.72±12.78	1.186	60	88.35±12.21	.929
	이혼 가정	8	90.50±14.90		5	82.80±10.80		6	77.50±28.33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91.25±12.28	1.936	16	91.13±9.52	.054	12	83.75±16.39	.349
	고등학교 졸업	141	94.27±13.41		42	91.76±12.96		39	87.08±11.84	
	대학 졸업 이상	91	96.80±12.40		25	92.48±15.21		5	88.20±13.14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6	90.83±11.99a	3.374*	16	92.00±9.10	.227	22	83.36±12.95	1.213
	고등학교 졸업	170	95.44±12.84		58	91.26±13.48		37	89.11±14.09	
	대학 졸업 이상	41	98.41±13.77a		10	94.30±17.19		3	88.00±15.59	
아버지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69	97.55±13.15	2.862*	17	94.00±13.15	.351	11	94.91±15.22a	4.464**
	사무직	52	97.10±13.99		14	91.50±17.06		4	79.75±8.10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30	92.62±12.78		54	90.98±11.71		41	86.93±10.86	
	무직	6	91.83±8.57		0	·		2	63.50±28.99a	
어머니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19	94.84±12.21	1.281	5	96.40±11.78	1.441	0	·	.369
	사무직	27	97.04±13.20		8	85.38±19.62		3	93.00±3.46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85	92.96±12.39		42	90.38±9.61		33	88.09±14.15	
	주부	125	96.28±13.74		31	94.39±15.01		27	86.15±15.08	
한 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26	93.73±14.69	2.105	7	99.00±16.33	3.126*	15	84.80±17.46	.982
	101～200만원	70	92.97±13.97		33	86.64±10.37		19	84.21±13.91	
	201～300만원	57	96.89±13.57		15	96.00±13.93		15	89.13±11.78	
	301만원 이상	73	98.15±12.34		23	93.74±14.78		13	91.92±13.42	

주 : *p<.05, **p<.01.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표 12>에서처럼 일반 가정 청소년, 과음주 가정 청소년,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각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살펴보면, 성별과 형제자매, 취미 운동 여부, 친한 친구 및 존경하는 선생님 수, 지난 학기 성적 그리고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96.75±13.73점으로 93.08±12.21점인 여학생보다 $p<.05$의 유의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대상자들이 외동인 경우 극복력이 100.29±13.18점으로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의 94.02±12.86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5$). 또 취미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높았고($p<.01$) 학교에서 친하게 느끼는 친구가 있는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p<.01$)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보면 친한 친구가 3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 한 대상자들보다 6.92점의 극복력이 높고($p<.01$) 1～2명 있다고 한 대상자들도 없다고 한 대상자들보다 5.27점이 더 높았다($p<.05$). 존경하는 교사 수에 있어서는 3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이 1～2명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극복력보다 4.43점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p<.05$). 어머니가 중학교 졸업 학력 이하인 대상자들보다 대학 졸업 학력 이상인 경우의 대상자들이 7.58점 높은 극복력 점수를 나타내었고($p<.05$), 아버지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 및 관리직 이상인 집단과 사무직인 경우가 비슷한 극복력 점수를 나타내면서 사무직이거나 무직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한편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을 살펴보면, 성별과 취미 운동 여부, 그리고 한 달 가정수입만이 극복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남학생이 95.59±12.78점으로 88.86±12.12점인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극복력을 보였고($p<.05$) 취미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의 극복력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9점 이상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p<.01$). 하지만 가정수입에서는 오히려 1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인 경우가 가장 극복력이 높았다($p<.05$).

그 외 극복력의 결과는 2학년인 경우, 외동인 경우, 종교가 있을 때, 취미 활동을 할 때, 학교에 친한 친구와 존경하는 교사가 있을 때, 지난 학기 성적이 좋을

수록, 부모나 조부모와 동거할 때, 부모의 학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 이상인 경우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차이에서 남학생의 극복력 점수가 91.88±15.43점으로 84.43±12.03점인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5$) 아버지 직업 종류에 따른 극복력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Turkey 사후검정을 통해 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복력 분석 결과는 전문직 또는 관리직 이상인 경우가 94.91±15.22점으로 가장 높으면서 무직인 경우보다 자녀의 극복력이 31.41점의 큰 차이를 나타났다($p<.01$).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그 외의 독립변수들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고, 외동인 경우, 종교와 취미가 있을 때, 취미로 운동을 할 때,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지난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부모 또는 조부모와 동거할 때, 이혼하지 않은 가정일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 달 가정수입이 많은 경우에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집단의 극복력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극복력 결과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졌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의 청소년,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그리고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여학생일 때 보다는 남학생일 때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는 청소년의 극복력이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외 주요 변수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은 외동일 때 극복력이 보다 높았고 취미로 운동을 하는 경우,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지난 학기 성적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 및 관리직 이상, 또는 사무직인 경우에 극복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존감이나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이

외에도 교사관계, 교우관계 점수와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과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의 경우에는 취미로 운동을 하는 대상자가 극복력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사관계 점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의 경우는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관리직 이상일 때 더 극복력이 높았고 교우관계 점수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 일반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부모의 문제음주 수준이 낮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단변량분석 결과를 통해 선별하였다. 일반 가정 청소년의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친한 친구 수, 지난 학기 성적, 어머니 학력, 외동 여부, 교우관계, 아버지 직업, 취미 운동 여부, 교사관계가 그들의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선별되었다.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들 변수 중에서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의 두 변수가 청소년 극복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p=.000) 자존감은 41.1%,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은 5.5%의 일반 가정 청소년 극복력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은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에 의해 총 46.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수들은 청소년 극복력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일반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n=300)

관 련 요 인	β	R^2	Cum R^2	F	Sig
자존감	.641	.411		125.393	.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247	.055	.466	78.241	.000

(3)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단변량 분석 결과에 의해 과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교우관계, 성별, 교사관계, 한 달 가정수입, 취미 운동 여부였다. 이 변수들 중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서처럼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의 독립변수였고 구체적인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자존감은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을 52.8%정도 설명하고 있었고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은 12.5%를 설명하고 있어 이 두 변수가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대해 총 65.3%를 설명하는 주요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교우관계, 성별, 교사관계, 한 달 가정수입, 취미 운동 여부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은 없었다.

<표 14>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n=95)

관 련 요 인	β	R^2	Cum R^2	F	Sig
자존감	.727	.528		72.778	.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392	.125	.653	60.349	.000

(4)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대한 주요 관련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이전의 단변량 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교우관계, 아버지 직업, 성별의 변수가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였는데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 가정 및 과음주 가정에서처럼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의 변수가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표 15>. 먼저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을 45.1% 설명하고 있었고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의 변수는 6.1% 설명하여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에 대해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총 51.2%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15>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n=69)

관 련 요 인	β	R^2	Cum R^2	F	Sig
자존감	.672	.451		42.788	.000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251	.061	.512	26.743	.000

Ⅴ. 논 의

본 연구는 일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극복력 수준을 규명하며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극복력을 과음주 가정과 일반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파악하고 그 극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을 찾아내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문제음주자 가족에 대한 연구들과 달리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정신과 간호현장에서 문제음주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를 돕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가지는 극복력과 그에 대한 관련 요인 및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겠다.

A.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

청소년 전체 표본의 극복력 평균점수는 92.99±13.49점이었고 극복력 측정 도구의 세 가지 하부개념 중에 대인관계 특성의 극복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인내적 특성의 극복력, 마지막으로 대처양상 특성의 극복력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 중학생들의 문제대처능력에 대한 중재를 통해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결과 13점 이상으로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으로 나타난 대상자는 전체 표본의 14.3%이었는데 이는 전수미의 연구(2000)에서 18.4%로 나타난 것보다 작았다. 6점 이상의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전체 표본의 34%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백금숙의 연구(2000)에서 37%로 나타난 것보다 작아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음주자 비율이 기존 연구들에서보다 작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양원의 연구(1995)에서 27.8%로 나타난 것보다 증가된 비율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국내의 문제음주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선 알코올중독

자 자녀 선별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제음주자들의 비율을 알아보았는데 국내에 실제 알코올남용자가 12%, 알코올의존자가 10%로 나타나 전체 중독 평생 유병률이 22%라고 알려져 있는(민성길, 1995) 것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의 문제음주자 비율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제음주자들 중에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는 경우도 많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생 자녀들에게 국한하여 그들의 자가보고를 통해 부모의 문제음주를 확인한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 표본의 극복력이 92.99±13.49점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극복력은 87.36±14.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91.35±12.72점이었으며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이 94.82±13.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p=.000$). 또한 대상자들의 자존감 점수와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도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p<.01$) 이들 변수들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개념의 평가적 요소로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자아존중감(Argyle, 1972)이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는데 Dumont와 Provost(1999)의 연구에서 스트레스나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개인의 능력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의 차이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족환경의 지지 정도 및 가족 내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변수였다.

다시 말해,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의 심각한 문제음주 행위로 인해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을 일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고 그들의 자존감도 더 낮아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나가는 극복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서 문제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와 함께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 및 긍정적인 가족관

계 형성을 위한 가족중재가 우선적인 간호중재의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나타난 것은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취미활동, 한 달 가정수입 등이었고 대상자의 성별이나 지난 학기 성적, 형제분류의 일반적 특성 변수들도 각 연구 대상 집단에 따라 극복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B. 청소년 극복력의 관련 요인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극복력과 그에 대한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극복력에 대한 주요 관련 요인으로서 자존감을 꼽을 수 있었는데, 전체 연구 대상의 자존감 점수가 27.45±5.07점이었고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 점수는 25.51±4.85점으로 과음주 가정 청소년보다 약 1점,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약 3점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p=.000).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과거 관련 연구들에서도 많이 밝혀진 결과인데(김명아, 2002; 손영균, 1993; 이경래, 1995; 이정숙, 1994; 장수미, 1991; Dumont, & Provost, 1999) 이는 불안정하고 비일관된 부모의 기대나 규범, 또는 보상이 자녀에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주게 되어 자녀 스스로 상처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명아, 2002; 최승희, 1997). 결국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위기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극복력의 형성에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고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존감이 극복력을 위한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고(Blum, 1998; Richardson, & Waite, 2002)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은 감정이 아닌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Hunter, 2001),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세 집단 중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 가장 낮은 극복력 점수를 나타낸 것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청소년 극복력에 대한 두 번째 주요 관련요인으로서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도 세 집단 중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는데(p<.01) 일반가정 청소년들과는 6점에 가까운 평균점수 차이를 보였다(p<.01).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문제음주로 인해 부부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이와 함께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서 전반적인 가족 응집력이 낮아지고 생활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민은정 외, 2001; 이미형, 이영자, 2000; Bartek et al., 1999; Hinz, 1990). 손영균(1993)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문제음주 가정의 부모 학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고, 경제 수준도 가장 낮게 나타난 것도 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극복력에 대한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의 밀접한 관련성은 9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가르치고 감독하며 그 가족의 기능이 높을 때 극복력이 높아진다는 Tiet, Bird, Davies, Hoven 등(1998)의 연구결과나 청소년의 극복력을 위한 가족 수준의 자원으로서 가족 내 응집력과 돌봄(Magg, Frome, Eccles, & Barber, 1997), 배우자 지지(Rutter, 1987), 돌보는 부모 등의 성인과 밀접한 관계(Loewenson & Blum, 2001; Wolff, 1995) 등을 보고한 이전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역기능적 가족 특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낮게 측정된 나타난 것이 낮은 극복력의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 일반 가정보다 문제음주 가정에서 이혼 가정 비율이 높았고 부모 모두 동거하는 비율도 낮아 그 청소년들에 대한 밀접한 지지가 적은 것과 함께 부모의 학력이 낮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때문에 극복력의 형성에 더 방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 중 70% 이상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핵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형제자매가 없이 외동이 경우가 전체에서 약 10%,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중에는 약 13%로 나타나 가족 내 의미 있는 대인관계가 주로 부모와의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부모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받는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Blum(1996)이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키우기 위해 대인관계 기술, 직업적 또는 학업적 기술의 증진 및 다양한 대인관계 형성을 도우며 책임감, 정직성, 의사결정력, 대인관계 통합성과 함께 자존감의 증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듯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문제음주 가정의 대상자들이 아직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로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의 중재와 함께 자존감이나 극복력을 위한 보호적 환경으로 가족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외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외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모두에서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극복력의 차이가 있었는데($p<.05$) 이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같은 나이 수준에서 역경을 더 잘 극복한다는 기존의 연구보고(Werner, 1986)나 집 없는(homeless) 청소년의 극복력을 조사한 Rew, Taylor-Seehafen, Thomas, Yockey(2001)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알코올중독 양상을 분류하였을 때 전체 대상자 중 청소년 스스로 부모 중에 알코올중독자라고 인식한 경우가 아버지가 41사례, 어머니가 3사례, 부모 모두인 경우가 6사례로 전체 아버지의 문제음주가 많이 보고되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권위적 가부장제도 안에서 문제음주자인 아버지가 자녀 중에 딸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하고 차별대우한다고 밝힌 김명아의 연구(2002)의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음주 가정이나 과음주 가정의 경우 여학생의 극복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 본 연구 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극복력 평균 점수의 차이가 일반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약 3.7점,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 경우에 약 6.7점,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은 약 7.5점으로 부모의 문제음주가 심각할수록 여학생의 극복력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남자아이들은 가족 조직체로부터 감정이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반면 여자아이들은 개인적 인간관계에 더 민감해 가족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Berkowitz, & Perkins, 1998; Gillgan, 1982, 이정숙, 1994에서 재인용). 하지만 부모가 문제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여학생의 극복력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다양한 연구와 함께 주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에 개별화된 관심과 특히 여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극복력의 관련 요인 중 두 번째 고찰할 요인으로 교우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Wolin과 Wolin(1993)은 극복력이 가족, 동료집단, 학교 또는 직장, 성직자, 또는

다른 mentor들을 포함한 더 큰 사회체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인간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것이며 인생주기의 과정과 세대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들로 평균연령이 14.36±.78세였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발달과업으로서 대인관계 자기안정성과 친밀감, 성적 만족감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성, 동성 친구들과 새롭고 좀더 성숙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이소우, 김소야자 등, 2001: 1542-48). 일반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의 세 집단 모두에서 친한 친구 수 또는 제일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 한 명에 대한 교우관계 검사 점수가 극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상 과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동년배 집단에 대한 높은 동일시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정서적 안정과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여(장휘숙, 2001) 극복력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또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특이한 결과로서 취미활동에 따른 극복력 조사에서 취미활동을 있는 대로 자가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그 취미활동의 개수나 유무에 따라서는 극복력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취미로 운동을 보고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연구 대상 전체 청소년 집단 및 일반가정,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illigan(1999)은 문화적 활동이나 스포츠 등의 취미활동이 청소년의 극복력 향상에 가능한 한 방법임을 설명했는데 그런 취미 활동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지지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 춤이나 합창, 그림 그리기, 애완동물 키우기, 농구나 축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율성과 성취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들의 취미 활동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컴퓨터 관련 취미였고 그 다음이 운동, 음악 활동이었다. 컴퓨터 관련 취미나 음악 활동의 유무에 따른 극복력 차이는 없었는데 운동을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유의하게 높은 극복력을 나타내었다($p=.000$). 과음주 가정과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도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꼽은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유의하게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01$).

네 번째로 연구 대상자들 중 형제자매 없이 외동딸 또는 외동아들일 경우에 전체 표본과 문제음주자 부모가 없는 일반가정의 대상자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극복력이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문제음주 가정이나 과음주 가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지만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 가정에서 자녀가 많은 것보다는 한 명일 때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돌봄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의 극복력이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많은 것과 상관성을 가진다고 보고했던 이전의 연구결과(Blum, 2000; Tiet et al., 1998)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따른 구분에서는 극복력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다.

다섯 번째 청소년의 극복력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지적 능력을 생각해보면, Tiet 등(1998)이 청소년의 높은 IQ가 높은 극복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국내 이양원(1995)의 연구에서는 문제음주자의 성인 자녀들의 학력이 비교군보다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 세 집단 간 성적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상자들이 자신의 성적에 대해 자가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것이 결과도출에 제한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은 문제음주자 부모의 성별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이다. 먼저 문제음주 가정의 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복력이 다른 두 집단과 달리 큰 차이를 보였는데($p<.01$) 전문직 또는 관리직 이상인 경우와 무직인 경우의 극복력 차이가 31점까지 나타났다. 이는 앞서 논의된 바대로 자녀들이 알코올중독자로 인식한 대부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특히 문제음주자가 많은 문제음주 가정에서의 아버지 직업에 따른 극복력에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를 알코올중독자라고 지각한 경우의 극복력이 문제 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평균점수보다도 약 2점 낮게 나타나 가장 극복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Werner(1986)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인 경우가 극복력이 낮다고 보고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문제음주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모두 알코올중독이라고 인식한 경우에는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가 매우 낮은 일반가정의 청소년이 가지는 극복력보다도 약 3.5점 더 평균점수가 높

았는데 이들이 가진 극복력 점수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극복력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변수인 자존감 점수와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점수에 대해 부모 모두를 알코올중독자라고 인식한 청소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이들의 극복력을 문제음주 가정에 속한 나머지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을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오히려 조금씩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 표본수가 6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제한점이 있지만 이들은 부모 모두를 알코올중독이라고 인식한 만큼 그들이 경험하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하며 부모의 문제음주로 인한 문제를 다른 집단보다 더 오래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극복력이 삶의 역경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개념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가장 최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다른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보다 더 강력한 극복력이 형성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덧붙인다면 극복력의 개념이 위기 상황이라는 기본 가정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측정도구에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대한 측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보다 명확히 위험 요인을 가진 상황, 사건에 대해 특정 대상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극복력 개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명료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부모가 문제음주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극복력이 낮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극복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관련 요인들로써 자존감 증진 방법이나 가족 중재와 함께 대상자 각각의 개별화된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면 그들의 극복력 증진을 위한 중재요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결론지을 수 있다.

C. 연구의 의의

극복력은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역경을 통해 형성되며 단지 생존하는 것뿐 아니라 괴로운 시련을 통과하거나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포함한다(Walsh, 1998). 또 극복력은 역경의 순간에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완시킬 수 있는 보호적인 요인들이 있어야(Dyer, & McGuinness, 1996) 형성이 촉진되고 증진되는 역동적인 과정상의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처럼 횡단적 설계를 통해 특정 연령의 중학생들에게서 측정된 청소년의 극복력이 대상자들의 상태를 모두 대변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내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본 연구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문제음주 가정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편견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비슷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다 높은 극복력을 보이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그 관련요인을 밝히고자 한 것은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실질적인 중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 최근 알코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문제음주자의 특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에서는 문제음주자들의 자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비교, 파악한 본 연구는 문제음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학생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성별에 따른 극복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성별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와 그들에 대한 개별적인 중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문제음주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극복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Palmer, 1997) 본 연구에서 국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지는 극복력과 그 관련 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 시도가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Ⅵ. 결론 및 제언

A. 결론

본 연구는 문제음주 행위를 하는 부모를 둔 중학생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극복력(resilience)을 파악하고자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에 따른 중학생 자녀들의 극복력을 확인하고 부모가 문제음주를 하는 중학생 자녀들의 극복력의 관련 요인을 규명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문제음주 부모를 둔 국내 중학생들을 표적 모집단으로, 서울 소재의 2개 학교, 지방 소재의 2개 학교에서 1, 2학년 남녀 중학생을 편의 추출하여 연구목적 설명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연구도구로 청소년의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희(2003)가 개발한 도구를 7문항을 대상자에 맞게 수정 또는 제외하여 사용하였고 부모의 문제음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김미례 외, 1995)와 그 외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평가척도(FACES Ⅲ, 안양희, 1988), 자존감 척도(장수미, 1991), 교우관계 척도(전숙자, 2003), 교사관계 척도(노숙영, 1998)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03년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이루어졌고 총 482명의 대상자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처리하여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전체 표본의 극복력 평균점수는 92.99±13.49점이었고 극복력 측정도구의 세 가지 하부개념 중에 대인관계 특성의 극복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개인내적 특성의 극복력, 마지막으로 대처양상 특성의 극복력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 중학생들의 문제대처능력에 대한 중

재를 통해 극복력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결과 5점 이하에 해당되는 일반 가정 청소년이 300명으로 전체의 62.2%, 6～12점인 과음주 가정 청소년이 95명으로 19.7%, 13점 이상의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이 69명으로 전체 표본의 14.3%를 차지했다. 이 중 문제음주 가정의 경우에 부모 모두와 동거 비율이 더 낮고, 이혼가정이 많았으며, 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어머니가 서비스직이나 생산기술직의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p<.05$). 주요변수에서는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세 집단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p<.01$).

3. 일반가정 청소년들이 가진 극복력이 94.82±13.06점,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이 91.35±12.72점,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진 극복력이 87.36±14.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

4. 일반가정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높고,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좋으며,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가 긍정적이고, 남학생일 때, 외동일 경우, 취미로 운동을 할 때, 친한 친구 및 존경하는 교사 수가 많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05$).

5. 과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경우 자존감이 높고,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이 좋으며, 교사관계가 긍정적이고, 취미로 운동을 하며, 남학생일 때, 한 달 가정수입이 많을수록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05$).

6.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극복력은 자존감이 높고,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과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아버지 직업이 전문직 또는 관리직 이상일 때 그리고 남학생일 때 더 높게 나타났다($p<.05$).

7.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극복력을 설명하는 주요 관련요인을 알아보았을 때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자존감과 가족결속력 및 적응력이 유의하게 극복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본 연구에서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하고 올바른 모델링이 부모인 청소년기 초기의 13～15세의 청소년으로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일반 중학교 대상으

로 임의표출 한 후 대상자들의 자가보고에 의해 선별되었으므로 전체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일반화하기 어렵고 그 표본수도 적었다.

2. 본 연구에서 문제 음주자는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 결과 13점 이상 받은 청소년의 경우를 문제음주자의 자녀라고 명명하였으므로 연구 결과가 반드시 알코올중독자 자녀들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3.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에 대한 극복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도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이 가지는 극복력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추후 고찰이 필요하다.

B.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극복력을 규명하고자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의 극복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1.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의 지속기간과 심각성의 차이에 의해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극복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게 문제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의 극복력을 파악하기 위해 그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접근을 제언한다.

2. 극복력은 인생 주기의 과정에 걸쳐 어떤 지점에서든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음주 및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들이나 일반 청소년 집단 내에서 극복력이 발전되는 시점 및 극복력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3. 극복력과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문제음주 가정과 과음주 가정의 청소년이 34%로 이는 사회에 방치된 문제음주자들이 많이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한 음주 행위와 가족의 정신건강을 위한 홍보활동이 많이 있어야 하고 간호중재가 지역사회 학교 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의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집단의 특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사례 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구영 (1999). 알콜중독자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에 관한 연구: 입원 환자 가족과 외래 환자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김동희 (2002). 만정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김명아 (2002).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사는 자녀의 경험. 연세대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1995).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의 개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34(4), 1182-1193.

김미옥 (2001). 장애 아동 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김윤희, 이광자, 유숙자, 이소우, 김소야자 외 15인 (2001). 정신간호총론(上・下). 서울;수문사.

김혜성 (2003). 회복력(Resilience) 개념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노숙영 (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 대학원 상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두산동아 (2001). 동아 참국어사전. 서울;(주)두산동아.

민성길 (1995). 제3개정판 최신정신의학. 서울;일조각.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21-132.

박재연 (1999). 알코올중독자의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사례연구-해결중심적 단기치료모델에 입각하여.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5(3), 147-165.

백금숙 (2000). 알코올중독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서지영 (2002). 부모 이혼의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Resilience)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손영균 (1993). 문제성 음주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의 특성.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안양희 (1988).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서컴프랙스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 대학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오승아, 이양희 (1999). 장애아동가족의 Resilience 관련 요인척도의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6(2), 21-48.

이경래 (1995).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의 부정적인 경험과 통제 소재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형, 이영자 (2000). 직장인 문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정신간호학회지, 9(2), 180-194.

이양원 (1995).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충동성 및 음주기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1998). 알코올 문제가정 성인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논문.

이인숙, 박영숙, 이은옥, 이현숙, 김대희, 송미순, 박연환, 최경원, 진영란, Kim H.S. (2002). 한국가족의 기능 회복력 측정도구 개발 연구-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4), 560-569.

이정숙 (1994). 문제성 음주 부모의 자녀들의 심리적 특성: 적응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임숙빈, 오희영, 박영임, 이은현, 이숙 (2002).

임종한, 이규래, 오미경, 곽기우, 이혜리, 윤방부 (1990).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FACES Ⅲ)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1(10), 8-17.

장수미 (1991). 알코올중독자 자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한 단기 집단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논문.

장수미 (2001). 알코올중독자 가족의 가족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개입모형 개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53-77.

장휘숙 (2001). 정신병리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의 탄력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113-127.

전수미 (2000).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문제음주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전숙자 (2003). 일반 중학생과 왕따들의 특성 비교 연구: 자아개념 및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논문.

조영신, 이진, 박월미, 한미애, 심경원, 이상화, 이홍수 (2001). 문제 음주자 선별을 위한 한 가지 질문의 유용성: 일개 대학 병원 검진센터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의학회지, 22(4), 575-581.

최승희 (1997).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대인관계와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문학석사학위논문.

최윤정, 김혜련 (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자녀(COAs)의 리질리언스에 관한 소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2), 35-40.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Ⅳ. Washington.

Argyle, M. (1972). Self-image and self-esteem. The Psychology of International Behavior. England;Harmond Sworth. 42-53.

Barteck, J. K., Linderman, M., & Hawks, J. H. (1999). Clinical validation of characteristics of the alcoholic family. Nursing Diagnosis, 10(4), 158-168.

Beardslee, W. R., & Podorefsky, D. (1988). Resilient adolescents whose parents have serious affective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mportance of self-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63-69.

Beeslee, D., & Stoltenberg, C. D. (2002). Control,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4(4), 281-298.

Blum, R. W. (1996). Getting through adolescence: develop programs that promote resilience. The Exceptional Parent, 26(9), 87-88.

Blum, R. W. (1998). Healthy youth development as a model for youth health promo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2, 368-375.

Chang, J. K. (1994). The study of factors influenced of life satisfaction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대한가정학회지, 32(2), 109-127.

Daley, D. C., & Marlatt, G. A. (1997). Managing your drug or alcohol problem. Therapy Works.

Dumont, M., & Provost, M. A. (1998).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Emshoff, J. G., & Price, A. W. (1999).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with children of alcoholics. Pediatrics, 5(2), 1112-1121.

Focht-Birkett, L., & Beardslee, W. R. (2000). A child's experience of parental depression: Encouraging relational resilience in families with affective illness. Family Process, 39(4), 417-434.

Gilligan, R. (1999). Enhancing the resilienc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public care by mentoring their talents and interests. Child and Family Social Work, 4, 187-196.

Harter S. L. (2000).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 review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3), 311-337.

Havey, J. M., & Dodd, D. K. (1995). Classifying COAs with three variations of the CAST: Classification rates, stability, and gender differences. Addictive Behaviors, 20(4), 501-507.

Hill, E. M., Ross, L. T., Mudd, S. A., & Blow, F. C. (1997). Adulthood functioning: The joint effects of parental alcoholism, gender and childhood socio-economic stress. Addiction, 92(5), 583-596.

Hinz, L. D. (1990). College student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psychological resilience or emotional distance? Journal of Substance Abuse, 2(4), 449-457.

Hodgins, D. C., Maticka-Tyndale, E., El-Guebaly, N., & West, M. (1995). Alternative cut-point scores for the CAST-6. Addictive Behaviors, 20(2), 267-270.

Hunter, A. J. (2001).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resilience in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6(3), 172-179.

Jew, C. L., Green, K. E., & Kroger, J. (1999). Development and 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2, 75-89.

Jones, D. C., & Houts, R. (1990). Parental drink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young adults. Journal of Studies Alcohol, 53(1), 48-56.

Loewenson, P. R., & Blum, R. W. (2001). The resilient adolescent: implication for the pediatrician. Pediatric Annals, 30(2), 76-80.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i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Magg, J., Frome, P., Eccles, J., & Barber, B. (1997). Psychosocial resources, adolescent risk behavior and young adult adjustment: Is risk taking more dangerous for some than others? Journal of Adolescence, 20, 103-119.

Mandleco, B. L., & Peery, J. C. (2000).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3(3), 99-111.

Menees, M. M., & Sergin, C. (2000). The specificity of disrupted processes in families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 Alcoholism, 35(4), 361-367.

Olsson, C. A., Bo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Osterman, F., & Grubic, V. N. (2000). Family functioning of recovered alcohol-addicted patients. Journal of Substance Treatment, 19, 475-479.

Palmer, N. (1997). Resilience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 nonpathologic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Health & Social Work, 22(3), 201-209.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 (2001). Correlate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Richardson, G. E., & Waite, P. J. (2002). Mental health promotion through resilience and resiliency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ency Mental Health, 4(1), 65-75.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Schuckit, M. A. (1995). A long-term study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19(3), 172-176.

Sergin, C., & Menees, M. M. (1996). The impact of coping styles and family communication on the skills of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7(1), 29-33.

Tiet, Q. Q., Bird, H. R., Davies, M., Hoven, C., Cohen, P., Jensen, P. S., & Goodman, S. (1998). Adverse life events and resili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11), 1191-1200.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Guilford Press.

Werner, E. (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Wolff, S. (1995). The concept of resilienc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 565-574.

Wolin, S., & Wolin, S. (1995). Resilience among youth growing up in substance -abusing familie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42(2), 415-428.

<부록 1> 극복력 측정 도구

◉ 극복력 측정도구의 하부개념 및 요소(김동희, 2003)

특 성	요 소	문 항
개인내적 특성	긍정적 자기이해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내 병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내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대처양상 특성	자립성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자원 동원성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모나 선생님과 의논한다.* 나의 병과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대인관계 특성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병을 이겨내고 싶다.*
	친밀성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는 편이다.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합계		32 문항

주 : * 만성질환아와 관계된 문항

◉ 청소년 극복력 측정 도구를 위한 수정 문항

특 성	요 소	기존 문항	수정 문항
개인내적 특성	긍정적 자기이해	나는 내 병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내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대처양상 특성	자립성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원동원성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부모나 선생님과 의논한다.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나의 병과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대인관계 특성	긍정적 가족관계 인지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병을 이겨내고 싶다.	(제외 문항)
	친밀성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는 편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

◉ 수정된 6개 문항들의 신뢰도

문 항 내 용	Alpha If Item Deleted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9257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9265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9252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9271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9279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	.9257
Reliability Coefficients 31 items alpha=.9275 Standardized item alpha=.9278	

<부록 2> 일반 가정, 과음주 가정,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 비교

변 수	구 분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실수(백분율)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실수(백분율)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실수(백분율)	χ^2	Sig.
성별	남	138 (46.0)	34 (35.8)	27 (39.1)	3.538	.170
	여	162 (54.0)	61 (64.2)	42 (60.9)		
학년	1학년	135 (45.0)	29 (30.5)	23 (33.3)	7.918	.019
	2학년	165 (55.0)	66 (69.5)	46 (66.7)		
형제자매	외동	33 (11.0)	5 (5.3)	9 (13.0)	3.534	.171
	형제자매 있음	251 (83.7)	87 (91.6)	57 (82.6)		
종교	있음	203 (67.7)	71 (74.7)	43 (62.3)	3.124	.210
	없음	94 (31.3)	22 (23.2)	24 (34.8)		
취미	있음	23 (7.7)	5 (5.3)	5 (7.2)	.633	.729
	없음	277 (92.3)	90 (94.7)	64 (92.8)		
취미운동 여부	운동함	85 (28.3)	30 (31.6)	17 (24.6)	.952	.621
	운동 안 함	215 (71.7)	65 (68.4)	52 (75.4)		
친한 친구 수	없음	58 (19.3)	18 (18.9)	17 (24.6)	4.568	.335
	1～2명	113 (37.7)	34 (35.8)	30 (43.5)		
	3명 이상	123 (41.0)	41 (43.2)	19 (27.5)		
존경하는 교사 수	없음	47 (15.7)	14 (14.7)	20 (29.0)	7.858	.097
	1～2명	128 (42.7)	38 (40.0)	24 (34.8)		
	3명 이상	108 (36.0)	41 (43.2)	24 (34.8)		
성적	1～10등	104 (34.7)	35 (36.8)	27 (39.1)	3.856	.426
	11～20등	103 (34.3)	29 (30.5)	17 (24.6)		
	21등 이하	75 (25.0)	25 (26.3)	24 (34.8)		
조부모 동거여부	한 분이라도 동거	68 (22.7)	23 (24.2)	15 (21.7)	.149	.928
	모두 동거 안 함	231 (77.0)	72 (75.8)	54 (78.3)		
부모동거 여부	부모 모두 동거	272 (90.7)	87 (91.6)	55 (79.7)	8.101	.017
	한 분 또는 모두 동거 안 함	27 (9.0)	8 (8.4)	14 (20.3)		
부모결혼 형태	일반 가정	287 (95.7)	90 (94.7)	62 (89.9)	7.650	.022
	이혼 가정	8 (2.7)	5 (5.3)	7 (10.1)		

주 : 무응답 제외

<부록 2> 계속

변 수	구 분	일반 가정 청소년 (n=300)	과음주 가정 청소년 (n=95)	문제음주 가정 청소년 (n=69)	χ^2	Sig.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3 (7.7)	17 (17.9)	13 (18.8)	25.650	.000
	고등학교 졸업	151 (50.3)	44 (46.3)	40 (58.0)		
	대학 졸업 이상	99 (33.0)	25 (26.3)	5 (7.2)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0 (13.3)	17 (17.9)	23 (33.3)	18.616	.001
	고등학교 졸업	185 (61.7)	60 (63.2)	39 (56.5)		
	대학 졸업 이상	46 (15.3)	10 (10.5)	3 (4.3)		
아버지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75 (25.0)	17 (17.9)	12 (17.4)	10.358	.110
	사무직	55 (18.3)	15 (15.8)	5 (7.2)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41 (47.0)	55 (57.9)	41 (59.4)		
	무직	6 (2.0)	1 (1.1)	2 (2.9)		
어머니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20 (6.7)	5 (5.3)	0 (0.0)	14.321	.026
	사무직	30 (10.0)	9 (9.5)	4 (5.8)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94 (31.3)	43 (45.3)	34 (49.3)		
	주부	131 (43.7)	32 (33.7)	28 (40.6)		
한 달 가정 수입	100만원 이하	28 (9.3)	8 (8.4)	15 (21.7)	12.117	.059
	101～200만원	76 (25.3)	33 (34.7)	19 (27.5)		
	201～300만원	59 (19.7)	15 (15.8)	16 (23.2)		
	301만원 이상	81 (27.0)	24 (25.3)	13 (18.8)		

주 : 무응답 제외

<부록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따른 극복력 차이 (N=482)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Sig.
성별	남	199	96.15±13.79	4.499	.000
	여	254	90.52±12.74		
학년	1학년	180	93.74±13.14	.958	.339
	2학년	273	92.50±13.72		
형제자매	외동	45	97.87±13.37	2.629	.009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388	92.30±13.46		
종교	있음	300	93.77±13.59	1.658	.098
	없음	147	91.52±13.29		
취미활동	있음	419	93.12±13.61	-.696	.487
	없음	34	91.44±11.98		
취미 운동 여부	운동함	127	97.34±13.57	4.366	.000
	운동 안 함	326	91.30±13.09		
친한 친구 수	없음ab	90	87.78±14.73	9.029	.000
	1～2명a	169	94.49±13.60		
	3명 이상b	184	94.39±12.16		
존경하는 교사 수	없음a	78	90.05±15.78	4.360	.013
	1～2명	186	92.26±13.43		
	3명 이상a	170	95.19±12.52		
지난 학기 성적	1～10등a	163	95.61±13.33	7.409	.001
	11～20등	148	93.22±14.32		
	21등 이하a	117	89.33±12.50		
조부모 동거 여부	조부모 한 분이라도 동거	101	94.87±14.49	1.592	.112
	모두 동거 안 함	352	92.45±13.16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모두 동거	405	93.34±13.22	1.582	.114
	한 분 또는 모두 동거 안 함	48	90.08±15.40		
부모 결혼 형태	일반 가정	429	93.44±13.09	2.920	.004
	이혼 가정	20	84.50±18.74		
아버지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a	50	89.76±12.92	4.577	.011
	고등학교 졸업	227	92.44±13.36		
	대학 졸업 이상a	129	95.81±13.05		

주 :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부록 3> 계속 (N=482)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표준편차	t or F	Sig.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ab	77	88.81±12.63	7.393	.001
	고등학교 졸업a	277	93.66±13.28		
	대학 졸업 이상b	58	97.50±14.20		
아버지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a	104	96.73±13.27	5.826	.001
	사무직	70	94.99±14.89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a	233	91.17±12.43		
	무직	8	84.75±18.56		
어머니 직업	전문직/관리직 이상	26	95.15±11.43	1.782	.150
	사무직	39	94.10±14.63		
	서비스/생산기술직/기타	166	91.34±12.25		
	전업주부	190	94.42±14.65		
한 달 가정수입	100만원 이하	50	91.38±16.08	5.797	.001
	101～200만원ab	124	89.81±13.40		
	201～300만원a	89	95.48±13.46		
	301만원 이상b	115	96.55±13.50		

주 : "a, b, c"; Means with the same letter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value 0.05 by Turkey test.

<부록 4>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 과정의 이현화입니다.

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잘 극복해 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학교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면 됩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무기명으로 했으며, 연구 외에 학습이나 평가 등 학교 생활에 어떠한 자료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히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 해 주세요. 간혹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더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본 연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 년 3 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신간호학전공 이 현 화

(☏ 02-361-8180 / E-mail : mizbeanhh@hotmail.com)

1. 한국어판 알코올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

■ 다음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가족 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사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나 두 분 모두 술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2.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잠을 못잔 적이 있다.		
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4.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외로움, 두려움, 불안,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5.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과 말다툼이나 싸움을 한 적이 있다.		
6.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가출을 했던 적이 있거나 가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7.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나나 식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때린 적이 있다.		
8. 나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끼리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9. 나는 술 마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 적이 있다.		
10.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병을 감추거나 쏟아버리고 싶었던 적이 있다.		
11.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음주와, 음주로 인해 나나 가족에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12.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끊기를 바란 적이 있다.		
13.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내 책임이나 내 잘못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다.		
14. 나는 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		
15. 나는 부모님이 술 마시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친구나 집 밖에서의 활동을 피한 적이 있다.		
16. 부모님 중 한 분이 술을 마셨을 때, 부모님이 말다툼이나 싸움 중에 나를 끌어들였던 것이 있다.		
17.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8. 나는 술문제가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		
19.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을 매우 원망(매우 미워함)한 적이 있다.		
20. 나는 술을 마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해본 적이 있다.		

다음 장에 계속 ☞

내 용	예	아니오
21.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비난받아본 적이 있다.		
22. 나는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3. 나는 우리 집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내 친구들의 집처럼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24. 아버지나 어머니가 술 때문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25. 나는 어머니가 알코올중독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6. 나는 술 마시는 아버지(또는 어머니)를 피하거나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술문제에 대한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반응(잔소리, 신경질, 싸움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적이 있다.		
27. 나는 우리 집의 술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바란 적이 있다.		
28.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나 다른 친척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29.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다가 머리나 배가 아프고 울거나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다.		
30.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술문제 때문에, 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집안 살림이나 일들을 대신한 적이 있다.		

2. 극복력 측정 도구

■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2.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3.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5.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6. 나는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7. 나는 지금의 나 자신이 좋다.				
8.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쁘지는 않다.				
9.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10. 나는 소중하다.				
11. 내가 가진 꿈을 미래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2.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13. 나와 내 가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				
14. 나는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15. 나는 힘든 것을 잘 참을 수 있다.				
16. 내 일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다.				
17.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에 나선다.				
18.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				
19.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20. 나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21.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노력한다.				
22. 나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23. 부모님은 나를 만족스러워하신다.				
24.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				
25. 나는 친한 친구들이 많다.				
26.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28. 나는 가족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29.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				
30.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31.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3. 가족적응력 및 결속력 측정 도구 (FACES Ⅲ)

■ 다음은 **여러분의 가족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세요.

내 용	거의 안 그렇다	가끔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					
3. 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그의 친구로서 받아들인다.					
4. 우리 가족의 자녀들은 집안에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 우리 가족은 오로지 우리 가족끼리만 일(예; 집안문제 결정, 여행, 외식 등)을 한다.					
6. 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다르다.					
7. 우리 가족은 가족 외의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성원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8.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일 처리방법을 때에 따라서 변경한다.					
9. 우리 가족은 서로 같이 자유시간 갖기를 좋아한다.					
10. 우리 집에서 잘못한 일이 생겼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잘못한 일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토론한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12. 우리 집에서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					
13. 우리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할 활동(예; 명절, 제사, 생일 등)에 있어서는 가족성원 모두 모인다.					
14. 우리 집에서는 정해 놓은 규칙이 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한다.					
15. 우리 가족은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예; 취미, 오락활동 등)을 쉽게 생각해 낸다.					
16. 우리 가족은 집안 일에 대해 가족성원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17. 우리 가족은 자신이 결정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과 상의한다.					
18. 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가 지도자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19. 우리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 우리 집에서는 가족 중에서 누가 집안의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4. 자존감 측정 도구

■ 아래의 문항 중 현재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V표 하십시오.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나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다.				
2.나는 나 자신을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3.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4.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을 해낼 수가 있다.				
5.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나는 가끔씩 쓸모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7.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나는 나 자신에 대해 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9.나는 항상 실패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0.나는 나 자신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				

■ 다음 물음에 대해 가장 사실과 가까운 곳에 ∨표, 또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Ⅰ. 다음은 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 남_____ 여_____
2) 학년 : _____학년
3) 연령 : _____세
4) 형제 : _____남 _____녀 중 _____째
5) 종교 : 불교_____, 기독교_____, 천주교_____, 없음_____, 기타_____
6) 최근 내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어떤 것이든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예; 운동, 여행, 컴퓨터 공부, 학교 공부 등)

☞ _____

7) 나의 취미활동에 대해 있는 대로 쓰세요.

☞ _____

II. 다음은 나의 가족에 대해 질문입니다.

8) 현재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표 하고, 보기에 없는 경우는 ⑧의 빈 칸에 써주세요.

① 아버지 (　　)　　⑤ 외할아버지 (　　)
② 어머니 (　　)　　⑥ 외할머니 (　　)
③ 할아버지 (　　)　　⑦ 형제자매 (　　)
④ 할머니 (　　)　　⑧ (기타)_____

9)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 ∨표 하고, ③④⑤⑥에 답한 경우 구체적인 시기도 옆에 적어 주세요.

_____①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신다.
_____②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
_____③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부모님 이혼 ___년 전
_____④ 어머니만 살아 계신다: 아버지 사망 ___년 전
_____⑤ 아버지만 살아 계신다: 어머니 사망 ___년 전
_____⑥ 양친 모두 안 계신다: 아버지 사망 ___년 전, 어머니 사망 ___년 전

10)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정도를 다음 보기 중에 각각 골라 번호를 쓰세요.

<보　　기>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④ 고등학교 중퇴	⑦ 전문대학 졸업	⑩ 대학원 이상
② 중학교 중퇴	⑤ 고등학교 졸업	⑧ 대학교 중퇴	
③ 중학교 졸업	⑥ 전문대학 중퇴	⑨ 대학교 졸업	

a. 아버지 : _____　　b. 어머니 : _____

11)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다음 보기 중에 각각 골라 번호를 쓰세요.

<보　　기>

① 전문직 (예: 의료인, 변호사, 교육자, 언론인, 방송인, 예술가, 종교인 등)
② 관리직 이상 (예: 5인 이상 기업체 경영주, 5급 이상 공무원, 회사 과장급 등)
③ 사무직 (예: 일반회사원, 5급 미만 공무원, 은행원, 사회단체 직원 등)
④ 판매서비스직 (예: 소규모 자영업, 판매직 고용인, 서비스직 고용인, 외판원, 수위 등)
⑤ 생산기술직 (예: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숙련가/반숙련가, 노동자 등)
⑥ 무직
⑦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
⑧ 기타*(→아래의 빈 칸에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a. 아버지 : _____　　b. 어머니 : _____

12) 가정의 한 달 총 수입은?

____① 100만원 이하 ____④ 약 301만원～400만원

____② 약 101만원～200만원 ____⑤ 약 401만원～500만원

____③ 약 201만원～300만원 ____⑥ 500만원 이상

Ⅲ. 다음은 나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3) 내가 속한 반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나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 )명

14)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 선택하여, 그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의 각 항목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상당히 그렇다	항상 그렇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와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					
내가 필요로 할 때 힘이 되어 준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다.					
내가 아플 때 염려를 해 준다.					
나를 위해 주려고 한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표현을 한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같이 걱정을 해 준다.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위로를 해 준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말을 잘 들어준다.					
나와 함께 즐거운 일을 하거나 같이 지내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					
내가 청소를 할 때 도와준다.					

15)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생님은 교내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분

16) 일반적으로 교내 선생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항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표 하세요.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누릴 수 있다.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워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선생님은 나를 귀엽게 여기신다.				
우리의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한 분이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				

17) 지난 학기의 반에서의 내 성적은?

____① 1～10등

____② 11등～20등

____③ 21등～30등

____④ 31등～40등

____⑤ 41등 이하

♣ 설문에 열심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BSTRACT

Resilie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roblem-drinking in Parents

Lee, Hyun Hwa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ave a thorough grasp of resilience of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which conduce to maintenance their school and social life positively and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ts normally. Therefore the concret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tudy were to describe resilience of adolescents, to verify resilience of adolescents according to the problem-drinking in parent, and to find out related factors and predictive factors of resilience of adolescent of problem-drinking parents.

Empirical data for testing were collected conveniently from 482 adolescents who were students of 4 middle schools in Seoul and a local city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between March 26 and April 8, 2003. The 31-revised resilience measurement appropriate to adolescents from Kim(2003)'s instrument, the Korean Version of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CAST-K, Kim, Chang, & Kim, 1995), Rosenberg's Self-Esteem Scale(Chang, 1991),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Ⅲ(FACES Ⅲ, Ahn, 1988), and measurements of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t a school(Cheon, 2003; Roh, 1998) were employed to measure resil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problem-drinking level of parents, self-esteem,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at a school as independent variables. SPSS 10.0 WIN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mean score of adolescent resilience was 92.99±13.49, among components of the resilience measurement in three domains, the score of intrapersonal characteristics was highest, secondly the score of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core of characteristics of coping was lowest which was lower than the total mean score of resilience. This means that the intervention in coping skill can improve resilience of adolescents.

As s result of CAST-K, adolescents of non-drinking or social drinking parents who scored below 5 were 300(62.2%), adolesc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who scored 6 through 12 were 95(19.7%), and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who scored over 13 were 69(14.3%). The mean score of resilience of adolescents of non-drinking or social drinking parents was 94.82 ±13.06, the score of adolesc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was 91.35±12.72, and the score of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was 87.36±14.38 which was lowest among 3 groups(p=.000).

The related factors to resilience of adolescents of non-drinking or social drinking parents were self-esteem,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at a school, gender, existence of siblings, an exercise as a hobby, the number of close friends and respectable teachers at a school(p<.05), in case of adolescents of heavy drinking parents were self-esteem,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at a school, an exercise as a hobby, gender, monthly income(p<.05). The related factors to resilience of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were self-esteem,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at a

school, a job of a father, gender($p<.0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predictive factors of adolescent 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self-esteem an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in all of 3 groups($p=.000$).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evidence that potently influential factors to adolescent resilience which help them to overcome crisis situations were self-esteem and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These factors are needed to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the mo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interventions utilizing the methods of self-esteem improvement and family intervention are needed to promote resilience of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In addition, interventions at various kind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individualized strengths and resources are also need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give a w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an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Key Words : adolescents of problem-drinking parents, resilience